

2022년 4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빅 데이터 시대, 언어 데이터 분석하기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조사를 적절하게 써요! 11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이용악 시 둘러보기 13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정책명, 어떤 정책명일까요? 15쪽

국어 알리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17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3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문명과 문화, 같은 듯 다른 쓰임새 21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어미를 적절하게 써요! 25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용택 시 둘러보기 27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든든한 시작 29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속 차별 언어
권위적인 표현 30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신문 언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7쪽

빅 데이터 시대, 언어 데이터 분석하기

이상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빅 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 능력이 되었다. 대규모 데이터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검수하고 처리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말하며, 이는 결국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언어 자료를 포함하는 말뭉치 역시 그러한 빅 데이터의 한 종류이다. 말뭉치는 신문 기사, 댓글, 상품평,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콘텐츠와 같이 실제 사람들이 작성한 글 또는 발화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이루는 단어들의 빈도수와 분포, 통사 구조, 문체, 문맥에 녹아 있는 정보 등 텍스트에 내포된 여러 언어적 특성을 끌어내서 분석한다면 여러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정보인 단어의 사용 분포를 가지고 파이선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분석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어 말뭉치는 현재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와 KLUE benchmark를 포함하여 다양한 개별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들 말뭉치는 특별한 분석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텍스트 데이터 그 자체이나, 대부분 관리 및 분석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csv, json, xml 등의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각 형식은 특정한 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으며, 파이선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¹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¹ 라이브러리(library): 프로그래밍을 위한 함수, 클래스, 자료 등을 사용하기 쉽도록 묶어 놓은 것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JML>
  <header>
    <fileInfo>
      <fileId>WDRW1900310761</fileId>
      <annoLevel>원시</annoLevel>
      <category>비출판물 > 일기</category>
    </fileInfo>
    <sourceInfo>
      <title>오늘 내 아침과 점심</title>
      <author id="P10761" age="17" occupation="고등학생" sex="F" submission="온라인" handwriting="No">성은지</author>
    </sourceInfo>
  </header>
  <text date="20200000" subclass="밥">
    <p>아침에 일어난 후 방학이니까 학교를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결해야하는데 그때 밥이 한 공기 남아있었다. 물론
    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여동생이 있다. 그렇다 내 동생이 남아있던 밥 한공기를 먹은거다. 덕분에 밥을 먹으려면 밥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난 너무 귀찮고 배가 고팠다. 그래서 대충 냉장고를 보니까 떡국떡이랑 즉석 떡볶이가 있던것이다 그래서
    그냥 떡볶이 만들어 먹었다. 떡볶이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 크으 역시 한국인은 매운것도 먹으면서 살아야하는거같다. 김치
    강국</p>
  </text>
</SJML>
```

▲ [그림 1] ‘국립국어원 비출판물 말뭉치(버전 1.1)’의 파일 예시

[그림 1]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에서 배포하는 ‘국립국어원 비출판물 말뭉치(버전 1.1)’에 포함된 글 중 하나를 표시한 것이다. 이 말뭉치는 대중이 작성한 일기, 편지, 수필, 감상문 등의 글을 모아 구성한 것이며, 글 한 편이 하나의 xml 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파일마다 xml 문법에 따른 태그를 이용해서 파일 번호(file id), 글의 종류(category), 제목(title), 저자(author) 등의 메타 정보와, 글의 본문(text)을 별도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
import xml.etree.ElementTree as ET

tree = ET.parse('국립국어원 비출판물 말뭉치(버전 1.1)/WDRW1900310761.sjml')
root = tree.getroot()
```

파이선 라이브 러리를 이용하면 이러한 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원하는 영역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ml 파일 구조에서는 파이선의 x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각 태그 영역에 쓰여 있는 정보를 따로따로 추출할 수 있다. 위 코드는 xml 구조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분석하여 트리 구조로 저장해 두는 기능을 한다. 이를 이용해 다음 코드와 같이 이 파일에 주석되어 있는 메타 정보 중 태그를 이용해 저자의 나이, 성별, 직업을 추출해 볼 수 있다.

```
for meta in root.iter('author'):
    if 'age' in meta.attrib:
        age = meta.attrib['age']

    if 'sex' in meta.attrib:
        sex = meta.attrib['sex']

    if 'occupation' in meta.attrib:
        occupation = meta.attrib['occupation']
```

```
print(age, sex, occupation)
```

17 F 고등학생

말뭉치 파일 안에 정의된 태그와 ‘age’, ‘sex’, ‘occupation’ 등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위 글의 저자가 17세 여성이며 고등학생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성글의 본문은 <text>와 <p> 태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추출한다.

```
text = []
for p in root[1].findall('p'):
    t = p.text.strip()
    if len(t) > 0:
        text.append(t)
    else:
        for s in p.findall('s'):
            t_s = s.text.strip()
            text.append(t_s)
```

```
print(' '.join(text))
```

아침에 일어난 후 방학이니까 학교를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결해야하는데 그때 밥이 한 공기 남아있었다. 물론 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여동생이 있다. 그렇다 내 동생이 남아있던 밥 한공기를 먹은거다. 덕분에 밥을 먹으려면 밥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난 너무 귀찮고 배가 고팠다. 그래서 대충 냉장고를 보니까 떡국떡이랑 즉석 떡볶이가 있던것이다 그래서 그냥 떡볶이 만들어 먹었다. 떡볶이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 크으 역시 한국인은 매운것도 먹으면서 살아야하는거같다. 김치 강국

이렇게 추출한 텍스트에 다양한 방법의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각 형태소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이선 환경에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할 경우, [konlpy](#) 라이브러리를 주로 이용한다.


```
from konlpy.tag import Mecab

mecab = Mecab()
pairs = mecab.pos(' '.join(text))

print(pairs)

[('아침', 'NNG'), ('에', 'JKB'), ('일어난', 'VV+ETM'), ('후', 'NNG'), ('방학', 'NNG'), ('이', 'VCP'), ('니까', 'EC'), ('학
교', 'NNG'), ('를', 'JKO'), ('가지', 'VV'), ('는', 'ETM'), ('않', 'VX'), ('았', 'EP'), ('다', 'EF'), ('.', 'SF'), ('그래
서', 'MAJ'), ('집', 'NNG'), ('에서', 'JKB'), ('밥', 'NNG'), ('을', 'JKO'), ('해결', 'NNG'), ('해야', 'XSV+EC'), ('하', 'V
V'), ('는데', 'EC'), ('그', 'MM'), ('때', 'UNKNOWN'), ('밥', 'NNG'), ('이', 'JKS'), ('한', 'MM'), ('공기', 'NNG'), ('남',
'VV'), ('아', 'EC'), ('있', 'VX'), ('었', 'EP'), ('다', 'EF'), ('.', 'SF'), ('물론', 'MAG'), ('나', 'NP'), ('만', 'JX'),
('있', 'VX'), ('으면', 'EC'), ('상관', 'NNG'), ('이', 'JKS'), ('없', 'VA'), ('지만', 'EC'), ('나', 'NP'), ('는', 'JX'), ('여
동생', 'NNG'), ('이', 'JKS'), ('있', 'VA'), ('다', 'EF'), ('.', 'SF'), ('그렇', 'VA'), ('다', 'EF'), ('내', 'NP+JG'),
('동생', 'NNG'), ('이', 'JKS'), ('남', 'VV'), ('아', 'EC'), ('있', 'VX'), ('던', 'ETM'), ('밥', 'NNG'), ('한', 'MM'), ('공
기', 'NNG'), ('를', 'JKO'), ('먹', 'VV'), ('은', 'ETM'), ('거', 'NNB'), ('다', 'VCP+EF'), ('.', 'SF'), ('덕분', 'NNG'),
('에', 'JKB'), ('밥', 'NNG'), ('을', 'JKO'), ('먹', 'VV'), ('으려면', 'EC'), ('밥', 'NNG'), ('을', 'JKO'), ('해야', 'VV+E
C'), ('하', 'VV'), ('는', 'ETM'), ('상황', 'NNG'), ('이', 'VCP'), ('았', 'EP'), ('는데', 'EC'), ('난', 'NP+JX'), ('너무',
'MAG'), ('귀찮', 'VA'), ('고', 'EC'), ('배', 'NNG'), ('가', 'JKS'), ('고팠', 'VA+EP'), ('다', 'EF'), ('.', 'SF'), ('그래
서', 'MAJ'), ('대충', 'MAG'), ('냉장고', 'NNG'), ('를', 'JKO'), ('보', 'VV'), ('니까', 'EC'), ('떡국', 'NNG'), ('떡', 'NN
G'), ('이랑', 'JC'), ('죽석', 'MM'), ('떡볶이', 'NNG'), ('가', 'JKS'), ('있', 'VV'), ('던', 'ETM'), ('것', 'NNB'), ('이', 'V
CP'), ('다', 'EF'), ('그래서', 'MAJ'), ('그냥', 'MAG'), ('떡볶이', 'NNG'), ('만들', 'VV'), ('어', 'EC'), ('먹', 'VV'), ('었',
'EP'), ('다', 'EF'), ('.', 'SF'), ('떡볶이', 'NNG'), ('도', 'JX'), ('오랜만', 'NNG'), ('에', 'JKB'), ('먹', 'VV'), ('으니
까', 'EC'), ('맛있', 'VA'), ('더러', 'EF'), ('크으', 'IC'), ('역시', 'MAJ'), ('한국인', 'NNG'), ('은', 'JX'), ('매운', 'VA+ET
M'), ('것', 'NNB'), ('도', 'JX'), ('먹', 'VV'), ('으면서', 'EC'), ('살아가', 'VV'), ('야', 'EC'), ('하', 'VV'), ('는', 'ET
M'), ('거', 'NNB'), ('갈', 'VA'), ('다', 'EF'), ('.', 'SF'), ('김치', 'NNG'), ('강국', 'NNG')]
```

konlpy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각 형태소와 그에 해당하는 품사를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말뭉치 안에 있는 글들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글마다 사용된 단어(형태소)의 빈도수와 그 분포를 확인하고 또 연령별, 직업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국립국어원 비출판물 말뭉치(버전 1.1)’에 포함된 12,483편의 글 중 그 종류가 ‘일기’와 ‘수필’에 해당하는 10,767편을 선택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각 글에서 ‘직업’, ‘연령’, ‘성별’과 같은 메타 정보를 얻었고, 글 본문으로부터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품사를 가진 형태소만을 모았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그림 2]의 표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해 두었다.

	성별	직업	연령	카테고리	형태소
0	F	전업주부	54	일기	[딸아, 올해, 작년, 이맘때, 해동, 빈자리, 실감, 동안, 고생, 옆, 수, 시...
1	F	직장인/전문직	58	일기	[딸, 공포, 영화, 장르, 관습, 대물림, 해석, 대부분, 공포, 영화, 영화, ...
2	F	고등학생	17	일기	[유학, 낱짜, 전, 오빠, 가차, 한국, 생활, 정리, 출발, 나중, 성인, 그때...
3	F	무직	23	일기	[교생, 실습, 시작, 전, 두려움, 실습, 신청, 작년, 사범, 입학, 순간, 교...
4	M	초등학생	6	일기	[오늘, 유치원, 재롱, 잔치, 꼭두각시, 장구, 엄마, 아빠, 아랑, 할머니, 축...
...	...	...	...	...	...
10742	F	무직	25	수필	[지독, 철저, 혼자, 위, 모순, 감정, 갈피, 마음, 탓, 순간, 순간, 세계,...
10743	F	중학생	15	일기	[행복, 날, 이유, 생일, 아빠, 엄마, 생일, 봄, 끝, 계절, 여름, 시작, ...
10744	F	대학생/대학원생	20	일기	[날씨, 추위, 밖, 귀, 빨간색, 라데, 흡족, 사진, 씨, 방년, 대학교, 학년...
10745	F	대학생/대학원생	23	수필	[아빠, 엄마, 아빠, 어른, 물음, 엄마, 대답, 엄마, 언어, 폭력, 가정, 폭...
10746	F	초등학생	6	일기	[병, 품, 나라, 병, 품, 병, 품, 사진, 사물놀이, 악기, 춤, 무궁화, 태...

▲ [그림 2] ‘일기’와 ‘수필’ 글의 저자 정보와 명사 정보

이때 저자의 연령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저자들이 주로 어떤 명사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했는지를 세어 볼 수 있다.

다음 코드는 20세 미만의 저자들을 ‘10대 이하’라는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저자들의 텍스트 모두에서 사용된 명사들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10개를 추출한 것이다. 순서대로 ‘친구’, ‘시간’, ‘집’, ‘엄마’, ‘일’, ‘책’, ‘날’, ‘자신’, ‘학교’, ‘마음’이 추출된다. 이때 각 형태소 옆의 숫자는 해당 형태소가 ‘10대 이하’ 저자들의 글에서 사용된 빈도수를 뜻한다.

```
for x in df.iterrows():
    age = int(x[-1][3])
    if age < 20:
        age_10 += x[-1][-1]

Counter(age_10).most_common(10)

[('친구', 18220),
 ('시간', 13908),
 ('집', 13436),
 ('엄마', 13376),
 ('일', 13216),
 ('책', 12640),
 ('날', 11832),
 ('자신', 10664),
 ('학교', 9328),
 ('마음', 9024)]
```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	(친구, 4555)	(일, 3360)	(일, 563)	(아이, 232)	(일, 160)	(일, 470)
1	(시간, 3477)	(시간, 2811)	(시간, 454)	(일, 197)	(시간, 120)	(마음, 459)
2	(집, 3359)	(친구, 2141)	(마음, 408)	(엄마, 191)	(친구, 117)	(집, 450)
3	(엄마, 3344)	(자신, 1966)	(집, 371)	(책, 182)	(아이, 101)	(엄마, 423)
4	(일, 3304)	(마음, 1922)	(날, 348)	(시간, 145)	(집, 90)	(시간, 345)
5	(책, 3160)	(집, 1907)	(엄마, 295)	(마음, 117)	(마음, 84)	(친구, 290)
6	(날, 2958)	(날, 1787)	(시작, 285)	(날, 110)	(눈, 79)	(날, 285)
7	(자신, 2666)	(사랑, 1657)	(사랑, 279)	(시작, 99)	(시작, 77)	(딸, 276)
8	(학교, 2332)	(눈, 1561)	(친구, 278)	(자신, 99)	(자신, 76)	(아들, 253)
9	(마음, 2256)	(시작, 1453)	(이야기, 274)	(이야기, 89)	(엄마, 74)	(나이, 243)

▲ [그림 3] 연령대별 고빈도 사용 명사 목록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나 그림 등을 이용해 시각화하면 그 차이가 더욱 쉽게 눈에 들어온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단어 빈도수 및 분포를 시각화할 때는 아래 [그림 4]와 같은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자주 사용한다.



▲ [그림 4] 연령대별 고빈도 사용 명사 시각화(워드클라우드)

이 워드클라우드는 상위 1,000개씩의 명사들을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각 워드클라우드에서는 글자 크기가 클수록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위의 연령대별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연령대 그룹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이야기’, ‘마음’ 등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은 서로 다른 연령대 그룹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지만, 10대 이하 저자들의 글에서는 ‘언니’, ‘동생’, ‘할머니’, ‘게임’이, 20대와 30대 저자들의 글에서는 ‘일’, ‘시간’, ‘사랑’ (20대), ‘여행’ (30대)이, 40대와 50대 저자들의 글에서는 ‘일’, ‘아이’, ‘가족’ (50대)이, 60대 이상 저자들의 글에서는 ‘딸’, ‘아들’, ‘마음’, ‘인생’ 등이 다른 집단들과 달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 글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위의 코드에서 저자의 직업이나 성별 등의 정보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직업과 성별에 따른 단어의 사용 분포를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파이선 코드와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위 예시에서는 단일 단어의 단독 사용 빈도수를 분석했지만, 실제 텍스트 분석,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는 바이그램(bigram), 트라이그램(trigram)² 등을 이용한 단어의 공기(collocation), 여러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결합되면서 이루는 통사·의미적 구조, 문맥 등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텍스트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해 특정한 저자 그룹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거나, 특정한 시기에 신문 기사나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폭발적으로 언급량이 증가하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²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문장 내의 단어들 중 연속하는 2개, 3개 등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다루는 단위

또한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기계 학습, 딥러닝 등의 모델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연산과 예측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언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를 비롯한 여러 출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역 분석, 어휘 의미 분석, 문법성 판단, 개체명 분석, 상호 참조 해결, 문서 요약 등의 과제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개체명 분석 말뭉치에서는 텍스트 안에 특정한 인명, 지명 등의 개체명이 포함되어 있고, 정교하게 학습된 언어 모델이 텍스트 처리를 통해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 어떤 개체명이 해당되는지를 포착해 내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말뭉치 분석은 대규모의 말뭉치에 대해 체계적인 작업을 일괄로 수행하여 더욱 효율적인 자료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장점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를 포함하여 더 새롭고 다양한 언어 자료에 적용되어 여러 분야의 연구와 산업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장 다듬기

조사를 적절하게 써요!

문장 다듬기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학생에게 **여기** 통보해야 한다.

조사 '에'는 무정체언과, '에게'는 유정체언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유정체언이므로 '에' 대신 '에게'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장 다듬기

몇 년 전의 **에** 이 일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인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위문장에서 '몇 년 전'은 '이 일대'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므로 '몇 년 전에'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장 다듬기

자침에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을 할 때는 간접 인용을 할 때 쓰는 '고'가 아닌 '라고'를 써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심표, 마침표.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이용악 시 둘러보기 -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네 애비 흘러간 뒤
소식 없던 나날이 무거웠다
너를 두고 네 어미 도망한 밤
흐린 하늘은 죄로운 꿈을 먹었고

<겉은 구름이 모여든다> 중

지역어
죄롭다

→

대응 표준어
가엾다

살펴보기

'죄롭다'는 '가엾다'와 가까운 뜻을 지닌 함경도 방언입니다.
함경도에서는 보기에 안쓰럽고 딱할 때 '죄(죄)롭다'라는 말을 씁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삽살개 짖는 소리
눈포래에 얼어붙는 설탕 그늘
밭이
알곡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우리집이 가까운 항구에서> 중

지역어
눈포래

→

대응 표준어
눈보라

살펴보기

'눈포래'는 함경남도,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눈보라'의 방언입니다.
함경도 방언은 명사 끝에 'ㅣ'가 덧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모음이나 'ㅇ'으로 끝난 명사에 'ㅣ'가 결합되면 그 'ㅣ'는
그 명사의 일부로 굳어져 쓰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소곰토리 지웃거리며 돌아오는가
열두 고개 타박타박 당나귀는 돌아오는가
방울소리 방울소리 말방울소리 방울소리

<두메산골의 오랑캐꽃> 중

지역어
소곰토리

→

대응 표준어
소금가마

살펴보기

'소곰'은 '소금'의 고어(古語)이자 함경도 방언입니다.
함북 경성 일대에서 쓰이는 '토리'는 '가진 삼실로 편 큰 자루'
즉, '마대(麻袋)'를 뜻하는 말입니다.
'소곰토리'는 '소금을 넣은 마대 자루'를 말합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꼭까 정보

이용악 시인(1914~1971)은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조치대학에 재학하던 중
<신인문학>에 <파배자의 소원>을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그의 초기 시편들은 대체로 모더니즘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용악의 개성은 '이야기시'에서 탁월하게 구현되는데,
그의 이야기시는 일제 시대 고향한 민중들의 삶에 비탄을 두고 있습니다.
<분수령>, <낯은 집> 등의 시집을 남겼으며,
대표작으로 <불벌레 소리 가득 치 있었>, <낯은 집>, <오랑캐꽃>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정책명, 어떤 정책명일까요?



국립국어원에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정책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착한엄마센터
공익적불제
KMAPS
모듈교과서 스마트 '컨'
K-Digital Credit

이 정책명이
해당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조사 시기: 2021. 9. 2. - 9. 6.
조사 업체: (주)에가리서치

국민들은 외국어나 외래어가
포함되지 않은 정책명을
더 잘 이해하였습니다.

■ 정책명 이해도 (단위: %)

정책명	이해도 (%)
외국어·외래어	47.5
한자어	63.2
외국어·외래어 + 한자어	59.1
한자어 + 고유어	66.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또한 외국 문자 없이 한글로만 표기된
정책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책명 이해도 (단위: %)

정책명	이해도 (%)
한글	62.2
로마자	53.7
한글+로마자	55.8

국민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말들로 만들어진
정책명을 더 잘 이해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정책명 이해도 (단위: %)

정책명	이해도 (%)
정책명의 구성 요소가 국어사전에 있는 경우	61.5
정책명의 구성 요소가 국어사전에 일부 있는 경우	49.3
정책명의 구성 요소가 국어사전에 없는 경우	46.3

국민들은 6~7음절로 된 정책명을
가장 잘 이해하였습니다.

■ 정책명 이해도 (단위: %)

음절	이해도 (%)
5음절 이하	41.6
6~7음절	60.8
8~9음절	58.5

알기 쉬운 정책명 만들기

01 불필요한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 가족 돌봄 휴직
✗ 프롬나드 페스티벌

02 한글로 표기해요!
○ 행복 목소리
✗ K-Global@

03 국어사전을 확인해 보아요!
○ 원격 학습 도우미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04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만들어요!
○ 노동 안전 지킴이
✗ 깨끗한 환경의 낚시문화 만들기 운동

국어사전에 없는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요.
6~7음절 정책명이 이해도가 가장 높았어요.

알기 쉬운 정책명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무더위 쉼터
365일 경북에서 놀자
다독다독 축제

고양 사랑 기부제
걷기 좋은 천리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미향(영남대 국제학부 교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음...’. 이 가사를 읽는다면 동그란 초코과자와 함께 이미 노랫가락도 떠올리게 된다. 수십 년간 큰 인기를 지킨 비결이 그 초코과자의 특별함 때문인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낸 ‘정’이라는 소재 덕분인지 한 가지로 단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노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저 바라보거나 마주보고 있으면 다 안다는 그 말은 진정 맞는 것일까? 단언컨대, 말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의사소통에서 맥락에 주로 기대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 사이의 ‘정’을 기반으로 교감한다. 때때로 ‘눈치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라.’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눈치를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관점에서 눈치란 ‘한국인의 잣대로 남의 기분을 재는 기준’이란 다. 동일 문화권에서 살아 보지 않았다면 따라잡기 힘든 개념이다.

실제로 한국말에는 상황과 맥락에 기대서 해석한다는 표현이 꽤 많다. 예를 들면 ‘감이 오다, 감을 잡다, 눈치가 없다, 눈치로 때려잡다, 척하면 삼천 리’ 등이 있다. 문제는 소통을 위해 남의 기분이라도 알려면 ‘오늘은 왜 저렇게 말하지?’와 같이 그들의 예민한 표현 방식을 겪어 봐야 하는데, 외국인은 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맥락에 기대서 소통하는 사회는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도 특별하다. 의사소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상황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편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물어보지 않는다.



한국어 표현에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담긴다. 한국 문화에서는 구성원의 조화와 체면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거나 두루뭉술한 답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재 한 권에서 응답 표현을 세었는데, 긍정적 답이 160번 나오는 동안 부정적 답은 37번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책에서 이주노동자는 17 대 6으로, 결혼이민자는 15 대 1 정도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긍정 답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에서 살아오지 않았다. 분명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화권에서 성장한 학습자들은 맥락에 따라 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질문을 끈질기게 하기도 한다. 학습자의 이질감이 이러한데도 감, 눈치, 정 등이 강조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뜻을 명확히 하는 표현을 뒤로 숨기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그대로 묻어 두는 이야기 구성이 넘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근거 없는 단정인 것과 같이,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할 근거 또한 없다. 다양한 소통 상황을 접해 보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란 광고 문구가 나온 지 한 세대가 지났다. 이제는 수십 년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광고문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로 바뀌어 나오고 있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말의 쓰임까지 제대로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학습자는 담화에 적절한 한국식 표현을 배워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되는 공식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된다. 점점 다양해지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교실 안팎의 소통 상황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한국어로 체험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나고 싶어 한다.

문명과 문화, 같은 듯 다른 쓰임새

‘문화’와 ‘문명’, 실제 쓰임에서 어떻게 다를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시작은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시장 진출이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뒤이어 영화 ‘기생충’,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휩쓸더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한국 음식 문화 역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라면, 초코파이, 떡볶이 등을 맛있게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미 낯설지 않다. 다양한 한국 문화와 더불어 한국인의 의식주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이다.

‘문화’란 어떤 사회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하여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리킨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다면 문화와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문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문명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뜻풀이되어 있다.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문화와 문명은 인간 집단이 누리는 삶의 양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실제의 쓰임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과학 문명, 기계 문명, 공업 문명’의 경우 문명을 문화로 바꾸기 어렵고, ‘전통문화, 놀이 문화, 음식 문화’의 경우 문화를 문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흔히 문화를 정신적·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해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문명도 정신적 요소 없이 불가능하고 어떤 문화도 물질적 요소 없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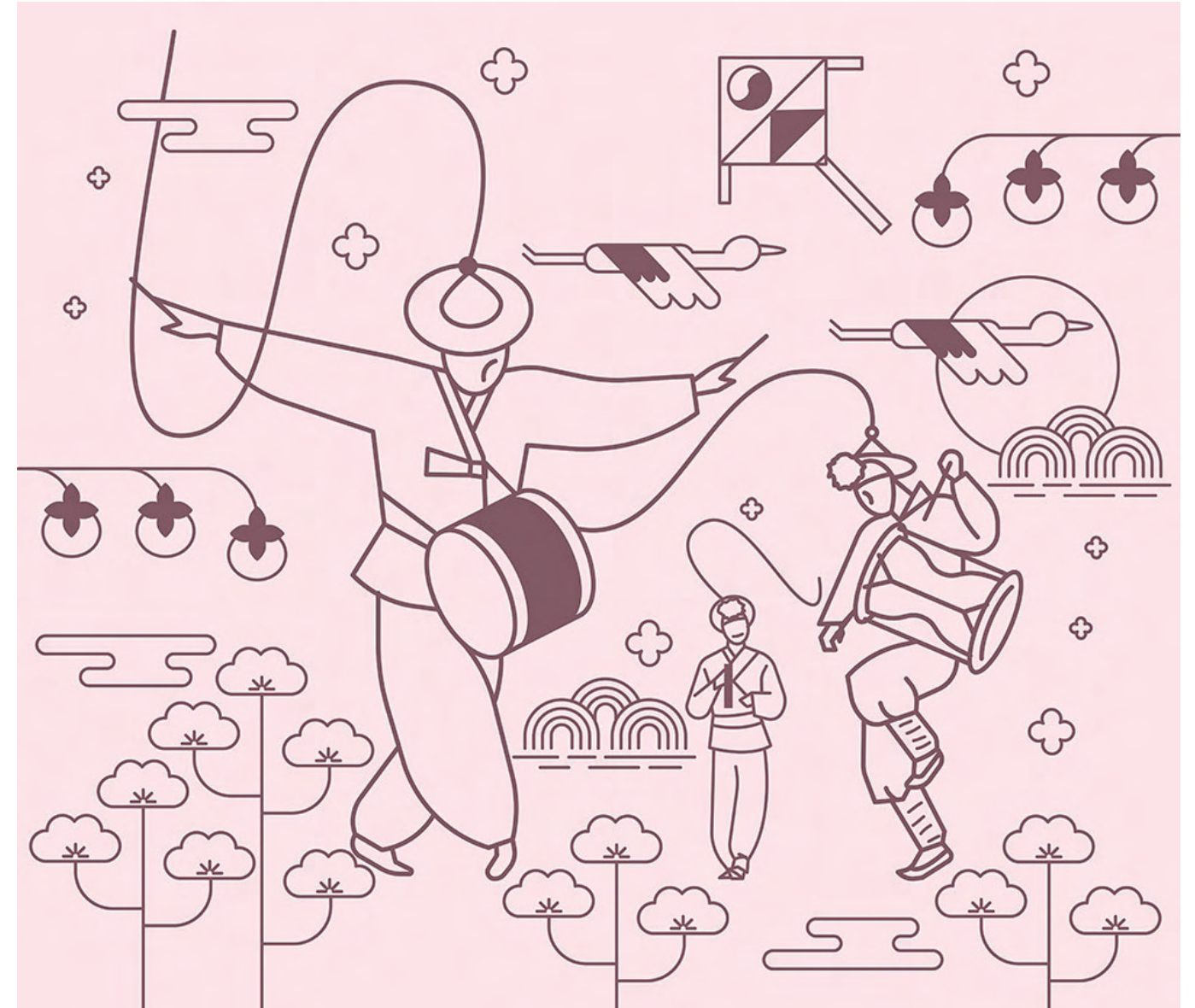


문명이든 문화든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다만 문명은 삶 속에서 편리를 추구하는 특성이 더 강하고, 문화는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둘의 차이를 추상성과 구체성에서 찾는 것도 분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가 구체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별적 현상, 곧 언어, 예술, 종교, 학문, 풍습, 제도, 의식주 등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문명은 그러한 개별적 현상들을 모두 아우르고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동양과 서양은 문화가 다르다.”라고 할 때, 이는 동서양의 구체적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를 뿐이다. 풍습과 제도, 의식주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 이런 점 때문에 문화는 ‘농경 문화, 대중 문화, 민족 문화’와 같이 구체적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다. 그 반면에 “개화기에 서양 문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에서처럼 ‘서양 문명’은 서양의 지적, 물질적, 기술적 성과물 전체를 추상적으로 가리킬 뿐 개별 현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또한 문명은 거시적, 총체적 개념으로 쓰인다. ‘로마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같은 용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기업 문화, 대학 문화, 도시 문화’에서 보듯 문화는 미시적, 부분적 개념으로 쓰인다. 문명은 묶는 범위가 크고 넓으며, 문화는 그 단위가 작고 촘촘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편 문명은 다른 문명과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논할 수 있으나, 문화는 그런 식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가령 서양의 과학 문명은 동양의 과학 문명보다 앞섰거나 고대 문명은 현대 문명보다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우월하다거나 고대 문화가 현대 문화보다 낙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문화는 각자 고유한 것으로서 서로 다를 뿐 질적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문화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이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릴 때에 역사와 전통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해외 현지화를 위해 외국어로 노래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한국 문화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계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문화는 더욱 높이 비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 문화 열풍과 더불어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말로 대화하는 외국인도 점차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문장 다듬기

어미를 적절하게 써요!



문장 다듬기

동일한 상품명을 가진 품목이 3가지 이상 섞여 있는 경우, **섞임** **섞임**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상표를 적어줄 것

명사형 '섞임'이 '비율'을 수식하고 있는데 더 자연스러운 수식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명사형 어미 '-으'를 관형형 어미 '-ㄴ'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다듬기

각 신청자의 유형과 등급에 **맞는** **맞게** 적절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엄중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자원'을 '각 신청자의 유형과 등급에 맞는'과 같은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이 경우 수식어의 길이가 다소 길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형형 어미 '-는'을 연결 어미 '-게'로 수정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다듬기

이야기를 **들으마**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으며'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단순히 나열할 때 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동시에 겹쳐져 있음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어미인 '-으면서'로 수정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개는 볶아뒀다가 음식에 섞어 먹고
꼬깁 한 접은 큰방 권 주고 한 접은
저녁일 허고 굴뚝허면 너 목어라

<아들아, 내 아들아> 중

지역어: 굴뚝하다 → 대응 표준어: 배고프다

살펴보기: '굴뚝하다'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 듯하다'라는 뜻을 가진 전라 방언입니다. 대개 식사를 하기 전에 약간 배가 고픈 정도를 나타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그걸로 죽을 쑤면
색깔이 포로소름하고 맛이 꼬소름하다

<푸른나무 10> 중

지역어: 꼬소름하다 → 대응 표준어: 고소하다

살펴보기: '고소름하다, 꼬소름하다'는 전라 방언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소하다'와 접미사인 '-(으)름하-'가 결합한 것입니다. 주로 된소리로 된 '꼬소름하다'가 많이 쓰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제금 나와 살면서
허기진 배 움켜쥐고
뚝보리 잡아 절구질
뚝나락 잡아 절구질.

<밭> 중

지역어: 제금나다 → 대응 표준어: 분가하다

살펴보기: '제금'은 전라 방언에서 '제금, 저금, 지금, 제금살이, 지금살이' 등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금나다'는 '제금 나다'로 쓰기도 하는데 '제금이 나다'가 굳어져서 관용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작가 정보

김용택 시인(1948-)은 전라북도임실 출신으로 창작과비평사의 <<퍼지지 않는 햇불>>(1982)에 시 <섬진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시는 섬진강을 배경으로 농촌의 삶과 농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그려 냈습니다.

<<섬진강>>(1985), <<꽃산 가는 길>>(1988), <<강 같은 세월>>(1995), <<마당은 비둘아졌어도 장구는 바로 치자>>(1996), <<그 여자네 집>>(1998) 등을 펴냈습니다.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든든한 시작

국립국어원-재외동포재단 업무협약 체결



■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국어원-재외동포재단 협력

이번 협약으로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협업 사업도 발굴하고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한국어 선생님들의 교수 능력을 인증할 프로그램(가칭 K-teache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글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콘텐츠와 교육자료 개발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신나는 한국어(미취학 만 3세~6세용)’를 2020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처럼,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더 든든하게 지원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식목일에 심은 나무가 미래의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국립국어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협약이 세계를 한국어로 푸르게 물들이는 울창한 숲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재외동포들의 한국어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립국어원

높임 표현은 배려와 존중을 담는 말이지만, 부적절하게 쓰이면 권위적인 느낌을 주거나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저는 오늘 학부모회 **오찬 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학부모회 **점심 식사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동'은 '일정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임'을 뜻하는 말로, 흔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쓰이며, 권위주의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점심 식사 모임'으로 고치면 권위적인 인상도 사라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국립국어원

삼촌은 복지관에 생활용품을 **배부**는 봉사를 하고 계신다.

삼촌은 복지관에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봉사를 하고 계신다.

'배부다'는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원하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부서장님께서 표창장을 **하사**하시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표창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하사하다'는 '임금이 신하에게, 또는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을 뜻하는 말로, 주체를 과하게 높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달하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차별과 편견이 들어간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신문 언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이정근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



《심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안녕하세요? 한국어문기자협회 제42대 회장으로 취임한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이정근 대표입니다.

《심표, 마침표》

언론계에서는 해마다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 신문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정근

신문의 날인 4월 7일은 서재필이 1896년 ‘독립신문’ 창간호를 찍은 날입니다. 언론계는 이를 기려 1959년부터 이날을 신문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날 신문 휴간을 하며, 한 주 동안 신문주간 기념행사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휴간은 하지 않습니다. 신문 협회는 매년 이날 ‘신문의 날 표어’를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제66회 신문의 날에도 표어를 공모했는데 윤미선 씨의 ‘신문 읽기 사이에는 생각하는 자리가 있습니다’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4월 6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및 축하연’을 개최합니다. 한국신문상, 신문협회상,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시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쉽표, 마침표》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어문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어떠한 행보를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근

어쩌다 보니 오직 한길만을 근 40년째 걸어오게 됐네요. 당시 언론 환경은 지금처럼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개별 방송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원고지에 작성하는 시대입니다. 급한 기사는 취재 현장에서 전화로 부르면 원고지에 받아 적어 데스크를 거쳐 편집부로 간 다음 문선부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활자로 뽑아 인쇄해 틀린 글자를 가려내는 일을 교정부가 했지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문장을 고친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문기사 형태도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장에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교정 기자들이 비문을 잡아내고 윤문까지 하게 됐지요. 그래서 교열부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2005년 분사 형태로 어문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2008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공신력과 영향력을 가진 언론 매체의 언어와 글은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어문기자로써 바른 우리말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올바른 문장 구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대표로서 그간 우리말바루기 연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쉽표, 마침표》

올해 한국어문기자협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한국어문기자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한국어문기자협회는 신문사 어문기자와 방송에서 어문기자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모인 언론 단체입니다. 이들이 각 미디어에서 바른 말과 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우의를 다지는 곳입니다. 소속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활동 외에 계간지 〈말과 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와 저술,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의 언어문화와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하 미디어언어연구소를 통해 연구 보고서와 출판물 발간 사업 등도 활발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쉽표, 마침표》

한국어문기자협회가 제정한 한국어문상,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문기자 시절 ‘우리말 바루기 팀’으로 한국어문상 대상을 받으시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정근

한국어문상은 한국어문기자협회가 1989년 한국어 발전에 기여한 언론 종사자 및 어문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신문·방송 언어의 발전, 국어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종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의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한국어문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말과 글〉을 통해 어문 연구에 기여한 사람 등에게 수여합니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 단체 근무자로서 우리말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협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등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2월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한국어문상은 8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대상과 신문·방송 부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학술·말글사랑·출판·공로·특별상 부문에는 한국어문기자협회장을 수여합니다.

중앙일보 어문연구소가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우리말 바루기’도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는 일간지 최초로 우리말 칼럼 고정란을 만들었다는 데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우리말 관련 칼럼이 연재되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지금까지 18년간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우리말과 맞춤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나감으로써 독자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우리말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문상 수상도 그러한 기여에 대한 평가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고정 칼럼이 생긴 이후 이를 따라 타 매체에서도 우리말 관련 칼럼이 많이 생겨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표, 마침표》

한국어문기자협회는 미디어언어연구소를 설립하여 신문과 방송 언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디어언어연구소가 진단하고 있는 국내 신문 언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정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문 언어의 첫 번째 덕목은 쉬운 말입니다.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해야 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먼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꽤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생소한 외국어들이 분별없이 쓰이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특히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을 전할 때는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량이 많아지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말하듯 공정한 표현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객관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굳어진 것들이어서 얼른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전히 서울은 높은 곳이고, 그래서 올라간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문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쓰고 있습니다. 늘 ‘상경한다’라고 하고,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일상입니다. 서울 중심적이고 지역 차별적인 의식이고 표현인데 말이죠. 성차별적인 표현의 문제는 자주 제기되니까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칭어는 형평성 있게 쓰이지 않지만 문제 제기가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운동선수, 연예인에게서는 대체로 존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직함이 존칭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고 시대에 어울리는 표현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쉽표, 마침표》

신문과 방송의 언어는 실 새 없이 새로운 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온택트, 블렌디드 러닝, 코호트 격리 등 신문과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표현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근

그렇습니다. ‘생파’, ‘생선’, ‘돈쫄’ 등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언론 매체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어문기자협회와 국립국어원이 더욱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날이 갈수록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용어의 외래어 남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용어까지 외래어가 넘쳐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외래어 사용은 불통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할 만큼 우수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많은 외래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래어도 마구 퍼뜨렸습니다. 외래어는 우리말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용어나 정책 용어는 더욱 신중해야지요. 이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이 정기적으로 외래어 순화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의 우리말 바꾸기도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선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언론 매체에서 다듬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언론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표, 마침표》

2020년 국립국어원의 국민 언어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신문이 좀 더 읽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근

네. 저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90%에 가까운 국민이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주 있다’는 응답이 최근 5년 사이 31%나 증가했다는 건 그동안 언론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성찰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곤란함을 겪은 말로는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신조어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은 원래 평균적인 독자를 고졸 정도로 설정하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설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용어나 신조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지면의 압박(기사량) 때문에 그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한자어의 경우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어려운 한자 순화어’를 참고해 수정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쉽표, 마침표》

오늘날 신문과 방송 언어의 역할에 관한 협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정근

일상의 언어는 신문과 방송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언어는 곳곳에서 쓰이는 말의 기준 같은 구실을 합니다. 낱말의 쓰임새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말하기의 형식에서도 신문과 방송 언어는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늘 더욱 다듬고 매일 반성해 나가야 하는 언어가 신문과 방송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를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지듯이 신문과 방송 언어도 잠시라도 그냥 두면 바로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일상의 언어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신문과 방송 언어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하는 전달 언어입니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잘 통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꾸준히 일상의 언어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너무 규범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언어 사용의 실례를 보여 주는 언어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의 언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용 면이나 형식에서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문과 방송 언어를 가꾸고 연구해 나가는 인력이 꾸준히 충원돼 가야 합니다.

《쉽표, 마침표》

한국어문기자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정근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탄생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 매체인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가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문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완성품으로서의 기사의 질이 그에 비례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바르지 않은 언어 사용이 늘어나고 오타자나 비문이 많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방송 등 미디어에서 우리말과 글을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한글과 우리말을 퇴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각사 어문기자들과 힘을 모아 미디어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나가고 우리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구성원인 각 소속사 어문기자들과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립국어원, 언어 전문가, 그리고 기타 우리말과 글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협회가 발간하는 <말과 글>의 저변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문기자나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구독할 수 있게끔 변화를 꾀해야 하겠죠. 전문적인 깊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글로 일반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꾸며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필자 선정에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그들의 바람도 함께 담는 등 소통해 나감으로써 <말과 글>의 저변을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협회 산하의 미디어연구소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디어가 쉽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진단하고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디어는 특히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올바른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합니다. 속되거나 선정적인 말, 특정 계층을 폄하하는 말, 차별적인 말, 객관성을 잃은 표현 등은 소통을 가로막는 말들입니다. 이 모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디어 언어 발전을 위한 연구 보고서와 출판물 발간, 토론회 개최 등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언어문화와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국어원의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사진: 강은혜

우리말 풀기

문제 1

올해 벼농사는 망쳐서
[쪽정이 / 쪽쟁이]가 반이다.

정답 찾기 Q

문제 2

우리 집 강아지는
[얼룩배기 / 얼룩빼기]다.

정답 찾기 Q

문제 3

벌레 물려 가려운 데에는
이 약이 [직효 / 즉효]다.

정답 찾기 Q

문제 4

그 일을 끝내는 데 고박
[여드레 / 여드래]가 걸렸다.

정답 찾기 Q

문제 5

그는 [의뭉스러운 / 으뭉스러운]
행동을 했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4. 5.~2022. 4. 19.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5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김*선 (0477)	예*리 (1232)	장*희 (5010)
김*민 (5037)	이*문 (2177)	정*희 (3654)
김*연 (9822)	임*린 (7511)	한*우 (3499)
김*혜 (3525)		

우리말 풀기

문제 1

고양이는 생쥐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 몰아부쳤다].

정답 찾기 Q

문제 2

일부 공사가 차질을 [빚고 / 빚고] 있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우리는 지금 성공과 실패의 [기로 / 귀로]에 있다.

정답 찾기 Q

문제 4

급한 일이 있으면 [께냄 / 궤냄] 말고 가 보게.

정답 찾기 Q

문제 5

누나는 [재작년 / 제작년] 여름에 결혼했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4. 19. ~ 2022. 5. 10.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5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장*영 (1539)	윤*현 (8300)	임*현 (4407)
장*민 (3734)	전*현 (8657)	우*훈 (5734)
윤*진 (4838)	배*지 (8108)	김*종 (0962)
정*성 (3936)		